

한국 캐주얼 의류업체의 아웃소싱

양 재 희 · 황 춘 섬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경제 사정의 악화에 따른 의류 소비의 위축 및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패션업체는 경영의 합리화와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경쟁력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아웃소싱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유행의 변화에 특히 민감한 여성캐주얼 의류업체의 국내외 아웃소싱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패션업체의 아웃소싱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효율적인 글로벌 소싱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법에 의해 실행되었으며, 여성캐주얼 의류업체 중 내셔널 브랜드와 라이센스 브랜드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는 근무 경력 5년 이상의 디자이너와 M/D로 제한하였다. 자료는 빈도분석, χ^2 검정, One-way ANOVA, Scheffe 검정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문별 아웃소싱 활용도에서는 부자재 공급 부문(100.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원자재 공급 부문(94.90%)이 높게 나타났다. 디자인 기획 부문은 12.42%로 아웃소싱의 활용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품목별 프로모션 아웃소싱 활용도에서는 패션잡화(97.2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죽 제품(96.08%)이 높게 나타났다. 점퍼와 코트 제품은 8.27%, 정장과 셔츠 제품은 3.56%로 프로모션 아웃소싱의 활용이 아주 낮게 나타났다. 브랜드 전개형태에 따른 아웃소싱 활용도 분석결과에서는 라이센스 브랜드 의류업체가 내셔널 브랜드 의류업체보다 프로모션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 여성캐주얼 의류업체는 생산부문에서의 해외 아웃소싱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1996년 이후에 해외 아웃소싱을 도입했으며, 중국으로의 아웃소싱이 가장 활발하다. 수작업에 의한 제품과 Knit 제품, 패딩과 다운 제품 등의 품목을 아웃소싱하고, 특히 이태리에서는 패션잡화의 아웃소싱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리를 제외한 중국, 북한, 베트남, 홍콩, 인도 등지로의 아웃소싱은 생산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점으로는 품질 불량과 통제·관리의 어려움 및 생산기간 지연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반면 이태리로의 아웃소싱은 우수한 품질 확보와 외국 패션 지장에 대한 전문 지식 획득의 장점이 있으나, 높은 생산비용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3. 여성캐주얼 브랜드 업체에서는 아웃소싱 업체 선정조건으로 생산력과 노하우를 가장 많

이 고려하고 있었고, 거래 중지의 최대 원인은 품질 불량 문제였으며, 납기 지연문제가 그 다음을 따르고 있었다.

4. 부문별 아웃소싱의 다변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생산 소스의 다변화와 함께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전문화, 특화된 생산라인의 개발 및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